

‘할리우드 2세대’ 나태주·이기홍이 뜬다

나태주, 뛰어난 액션 연기 기반 ‘팬’ 출연
이기홍, ‘메이즈 러너’ 시리즈로 큰 인기
‘설국열차’ 고아성은 할리우드 진출 모색

한국배우들이 할리우드로 더욱 깊숙이 진입했다.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한국 배우들이 주조연으로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현지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우도 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은 김윤진과 이병헌 그리고 배우들의 활약을 잇는 ‘2세대의 도전’으로 부를 만하다.

10월 개봉하는 판타지 블록버스터 ‘팬’에는 나태주가 비중이 큰 조연으로 출연한다. ‘피터팬’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영화에는 휴 잭맨과 아만다 사이프리트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주연으로 나섰다. 동양인 배우로는 나태주가 유일하다.

나태주는 국내에서조차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연기자다. 2년 전 태극영화 ‘더 킹’으로 연기를 시작했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오디션들을 통해 ‘팬’ 연출자인 조 라이트 감독의 마음을 빼앗아 역을 따냈다. 배역을 차지하기 위해 국내 몇몇 톱스타가 오디션에 응사하기도 했다는 뒷이야기는, 나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운다.

나태주의 목표는 ‘제2의 청룡(성룡)’ 혹은 ‘제2의 리젠제(이연걸)’다. 경희대 태권도학과 출신으로 출중한 무술 실력도 할리우드 진출



◀ 나태주 이기홍 ▶

에 힘이 됐다. 소속사 K타이거즈 관계자는 13일 “대역을 쓰지 않고 라이브 액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감정이 ‘팬’ 출연에 결정적이었다”며 “‘팬’ 개봉 후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에이전시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미동포 이기홍은 이제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배우’로 꼽힌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가 지어준 한국 이름을 지금껏 그대로 쓴다. 최근 내한한 그는 “미국 이름이 편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갖지 않았다”며 “한국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기홍은 판타지 액션 ‘메이즈 러너’ 시리즈로 국내에서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팬덤까지 지녔다. 16일 개봉하는 후속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 개봉을 앞두고 주연배우들을 대표해 내한했을 정도로 막강한 인기를 자랑한다. 지난해 개봉한 1편이 초반 예상세를 깨고 280만 관객을 끌어 모은 ‘반전 흥행’의 결정적 배경으로도 그의 활약이 꼽힌다.

이들 외에도 할리우드를 향하는 배우들은 더 있다.

고아성은 10~11월께 미국을 직접 찾게 계획. 지난해 할리우드 톱스타 애시튼 커처 등이 속한 엔터테인먼트인먼트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그는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할 생각이다.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구사력과 봉준호 감독과 함께 했던 영화 ‘괴물’, ‘설국열차’로 미국에서 얻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9월 14일>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성장통 영화 ‘크래쉬’ 삭제 상영 논란

올해로 성년(20회)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일 막을 올린다. 1996년 낫을 올리고 영화의 바다로 출항한 부산국제영화제는 20년 동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자리잡은 물론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만큼 영화제는 개최 기간 다양한 화제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96년 오늘 역시 그랬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하루 전인 9월13일 개막해 본격적인 영화축제를 이어가던 때였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월드시네마 부문에 초청된 ‘크래쉬’가 밤 9시 부산 중구 부영극장에서 10여분가량이 삭제된 채 상영되며 논란을 모았다.

영화 ‘크래쉬(사진)’는 기계문명의 발달 속에서 파멸해가는 인간군상과 그들의 욕망을 그린 작품. 이 가운데 동성애를 묘사한 장면이 삭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상영작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정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는 ‘크래쉬’의 수입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수입사인 대우축이 일부 분량을 삭제한 채 영화제에 출품했고 영화제측은 이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아직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이들이 이끈 첫 영화제에서 벌어진 시행착오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용관(현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전양준(아시아필름마켓 운영위원장), 김지석(수석프로그래머) 등 부산 지역 대학교수와 소장파 평론가들이 추진해 성사됐다. 박광수 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이들의 후견인으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호(명예집행위원장) 전 영화진흥공사 사장 등도 이들과 손잡고 영화제의 낫을 올렸다. ‘크래쉬’ 삭제 상영 같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들은 31개국 167편을 초청 상영하고 연 인원 20만여명의 관객을 부산으로 불러들이며 비교적 성공적인 첫 축제를 마쳤다.

그리고 20년 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제20회 영화의 향해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벌어진 논란을 딛고 일어난 부산국제영화제는 최근까지도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에 맞서며 순수한 영화축제로서 우뚝 섰다. 많은 관객 역시 스무번째 향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추석 극장가 ‘송강호 vs 설경구’ 2년만에 리턴매치 ‘사도’ ‘서부전선’서 흥행 대결

2년 만에 재현하는 스크린 빅 매치다. 수석여가 필요 없는 배우 송강호와 설경구가 추석 명절 극장가에서 흥행 대결을 벌인다. 사극 ‘사도’(제작 타이거퍼쳐스)와 한국전쟁이 배경인 ‘서부전선’(제작 하리마오파처스)이 두 배우의 영화다.

2년 전 각각 ‘관상’과 ‘스파이’로 맞붙어 흥행을 기록한 송강호와 설경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배경으로 한 각기 작품으로 또 다시 대결한다. ‘사도’가 조선시대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를 주인공으로 한 3대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집중조명했다면, ‘서부전선’은 한국전쟁 정전 직전 남북한 병

사가 만나 겪는 이야기를 몽글하게 그린 휴먼 드라마다. ‘사도’는 웃음기를 거둔 정통 사극이며, ‘서부전선’은 전쟁이란 아픔을 견뎌내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유쾌한 에피소드로 버무렸다.

20년 넘게 여러 영화에서 활약해온 두 배우의 새로운 도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결은 관심을 더한다.

송강호는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았다. “피불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군주의 사연에 가장 끌렸다”는 그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로 술하게 봐온 영조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풀어냈다. 연출자 이준의 감독은 “송강호의 연

기는 더 이상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설경구는 처음으로 전쟁블록버스터에 등장한다. 다만 “가장 비범한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다루고 싶었다”는 연출자 천성일 감독의 설명처럼 격한 전투신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낸다. 설경구는 “전 세대를 아우를 만한 영화”라며 “급박한 상황에 두 병사가 보여주는 휴머니즘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도’와 ‘서부전선’의 제작비는 모두 100억 원대. 두 배우의 활약 뿐 아니라 실재했던 시대가 스크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또 다른 볼거리로 꼽힌다. 이혜리 기자

■ 빅마우스

● “한국말로 방송, 눈물날 것 같다.”(연기자 추자현)

13일 방송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서, 그동안 중국 활동이 많아 한국 방송 출연이 오랜만이라며,

● “배추도사~!”(누리꾼 bhm1****)

13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한 현아의 ‘잘 나가서 그래’ 무대에 대해,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나온 모습이 인기만화 ‘옛날 옛적에’ 캐릭터를 닮았으며,

● “하정우와 멜로영화 찍고 싶다.”(연기자 황정음)

1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작품을 함께하고 싶은 배우’를 묻자 하정우가 “멋있다, 잘 생겼다”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복부 맛사지기 “뱃살 도둑” 인기!!!

특허청 상표등록! 복부, 허리, 등, 허벅지, 종아리에 간단히 착용만 하면 돼...
배가 냉한분, 속이 답답한분, 몸이 냉한 여성분 등 부모님께 선물로 큰 인기!!

최근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복부이다. 사람의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복부 온열 지압 맛사지기로 “뱃살 도둑” 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배가 따뜻 하면 생체 리듬이 원활 해져 늘 생기 있고 활기차게 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온 상승에도 도움을 주며 기초대사량을 늘려준다.

온열 효과 경혈지압, 회전 마사지, 37기지를 동시에 원리를 알면 배가 편해

삼복더위에 오히려 뜨거운 땅을 먹는 까닭도, 연기와 냉해, 화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불편하게 쑥뚱(온열)을 하는 이유도, 약 70%의 장기가 단단 주위에 집중되어 있고 온도가 50℃ 정도가 되면 세포가 활성화되어 허복부의 단점을 따뜻하게 해서 기와 혈의 흐름과 생체리듬을 좋게 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며 배가 차가워 소화기 안될 때 기와장을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했고, 또 어릴적 배탈이 나면 할머니,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고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던 아픔



뱃살도둑!



복부, 온열, 경혈 지압, 마사지기 “뱃살 도둑”

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던 전통 민간요법 이다.

복부, 온열, 경혈 지압, 마사지기 “뱃살 도둑”

최근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허리에 간단히 착용하고 있으면 온열기능은 물론 경혈지압과 회전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기 및 건강 관련용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월스플랜에서 개발한 “뱃살도둑” (의료기기 아님)은 유럽CE 인증, 특허청 상표 등록된 민을 수 있는 제품이며 복부 효과가 뛰어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00℃에서 소성시킨 신물질 바이오 세라믹 회전 봉으로 온열과 경혈 점의 연속지압 회전 마사지를 동시에 한 것으로서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뱃살도둑” 한 가정 한 대로 온가족이 복부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뱃살도둑”은 사용된 분들의 입소문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화제할 소자본 취급 점을 모집 중에 있다.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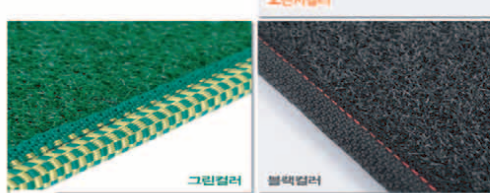
상담문의 1588-8391
광고사전심의를: 15-71-07-1 ※ 취급점 모집

자동차 매트 청소 안해도 먼지 안나고 깨끗해...

진흙길, 눈길 밟고 청소 안해도 깨끗한 카매트
눈 비가 와도 바로 세척 한 듯 깔끔!!



컬러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테두리 각 원리마다 고유한 디자인 테두리를 적용시켜 매트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시켜주어 미관상으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고급 액티브 매트

매트 전문 기업 크린메트에서 지난 10여년간 연구 개발 및 수많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자신 있게 선보인 크린 “액티브매트”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종매트와 고무매트, 코일매트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개발된 이 제품은 NYLON BCF재질의 원사를 한가닥 꼬아서 만든 원사에 NR+SBR을 배합한 천연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견고하며, 변형이 없고, 흙먼지 및 이물질들을 잡아주어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실내 공기 또한 쾌적하게 유지 시켜 준다.

여기에 NR+SBR의 배합시 전자파 차단 물질과 항균제를 첨가해서 자동차 및 주변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자동화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항균기능이 있어 자동차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보호 해주는 제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한번 구입 하면 처음 바릴 때까지 사용 할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제작 되었으며, 국내 자동차는 물론이고 수입차도 맞춤 제작 해드립니다.

국내 그 어떤 매트와 비교해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 국산자, 수입자, 전자증 주문제작 가능

전국 상담문의 1588-8391
※ 판매점 모집